

“기후정의 실현 위한 세계 각국 지역 네트워크 구축하자”

세계인권도시포럼 4일간 여정 마무리...포럼 선언문 채택 법·정책에 인권 반영...모범사례 공유·실천지침 개발 약속

세계 도시들의 인권 문제 논의장이 펼쳐진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기후위기와 인권’을 주제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13일 폐막한 이번 포럼에서는 각국에서 참가한 도시 대표들의 열린 논의와 함께 기후위기가 인권의 최대 위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후정의 실현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합의’ 등을 담은 선언문을 채택하는 성과를 냈다.

세계 인권도시 대표들은 이날 선언문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한 법, 정책, 실천 계획 등이 인권의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의 참여와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통해 기후정의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어 상호 대화와 협력을 통해 관련 지식, 정보, 모범 사례 등을 국제적, 지역 차원에서 공유하고, 유네스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등의 기후위기 대응 국제규범 등을 활용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지침을 개발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광주시는 또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을 통해 3년 동안 공동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한 공로로 유네스코와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담당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윤리인 차별에 대응하는 청소년들의 액션”이라는 주제로 두달간 진행된 유네스코 마스터클래스 광주시리즈 프로젝트 최우수상팀에는 내년 3월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파리 마스터클래스 참가 특권을 주기로 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세계인권도시포럼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

제사회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과제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이번에 채택된 선언문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결단과 행동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로, 국내외의 48개 협력기관과 80여 개 도시 430여 명의 연사가 38개 프로그램에 참여해 활기찬 분위기로 진행됐다.

포럼 공동주최 기관인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페기 히스 국장, 유네스코 본부 가브리엘라 라모스 사무총장보가 기조 발제를 맡았으며,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제2의 그레타 툰베리(스웨덴 환경운동가)로 알려진 12살 콜롬비아 환경·아동 인권운동가 ‘프란시스코 베라’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도시 대표, 유엔 전문가 등이 참여해 기후변화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와 지방정부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고, 주제회의에서는 시민단체 등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어린이청소년, 여성 등 다양한 이슈를 다뤘다.

이밖에도 이번 포럼 기간동안 해외 관계자들이 광주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인권투어, 인권정책투어, 유네스코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광주 인권마을 체험프로그램, 광주시 인권작품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을 마련했는데 큰 호응을 얻었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이번 포럼의 각 회의별 논의 내용은 앞으로 홈페이지와 발간되는 결과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문영훈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13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회 세계인권도시포럼 폐회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 의혹 ‘도마’

광주시의회 시정질문의...강수훈 “공무원 특혜, 수사도 고려해야”

13일 열린 광주시의회 본회의의 시정질문에서 광주 평동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각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광주시의회 강수훈(민주·서구1)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민선 7기 광주시가 미래전략으로 추진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 조목 지적한 뒤 협상 결과와 1심 패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대중교통 하나 들어가지 않는 평동에 한류 문화콘텐츠를 미끼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토건 세력과 사적 이익을 공적 이익으로 끌어들이는 공무원들이 합작한 특혜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무 공직자들의 서울 출장 경위와 사

업계획서 공짜 용역, 문화콘텐츠 평가 결과 0점에 불과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 컨소시엄을 둘러싼 술한 의혹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한 점 의혹없이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도 검토해야한다”고 광주시에 요청했다.

광주시는 1998년 평동 준공업 지역 지정 이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하자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 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공모에 참여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한류 문화콘텐츠 육성을 골자로 21만㎡ 부지에 1만 5000석 규모의 공연장, 스튜디오, 교육·창업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한 뒤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발 계획에 아파트(5000여 세대), 주상복합(3000여 세대) 비중이 높아 아파트 위주 난개발 우려와 함께 한류 사업 실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는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지난해 6월 우선 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했다.

현대 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측은 행정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이 정당했다”며 항소했다.

다변에 나선 강기정 시장은 “재판은 재판대로 승소할 수 있도록 대응하되, 사업의 정당성, 콘셉트, 추진 주체의 문제, 사업진행 과정을 둘러싼 의혹 등은 꼼꼼히 살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선 7기 당시 평동개발 뿐만 아니라 몇몇 사업은 진행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취임 100일이 지난 만큼 사업 평가 부서는 물론 감사위원회 등을 통해 잘 따져보겠다”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쌀값 안정·인구 소멸 대책 등 현안 검증

전남도의회 18·20일 임시회...도의원 16명 첫 도정질문

전남도의회 의원 16명이 도정질문에 나선다. 제12대 도의회 첫 도정질문으로 전남도 민감·쟁점 현안에 대한 검증을 통해 집행부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준비에 열을 올리는 의원들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예상 질문 대부분이 수 차례 오르내렸던 이슈라는 점에서 구체적 대안과 꼼꼼한 팩트 검증·추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이름 알리기’, ‘실적쌓기용’ 도정질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어 어떤 질문이 현장에서 오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의원 16명은 오는 18일과 20일 제 366회 임시회 기간 중 전남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다.

도정질문에 나설 의원들은 섬 방문객 반값 운임 및 섬 관광정책과 전북 학교급식 채택 여부(이철도의원), 쌀값 안정대책(박종원 도의원), 청년농

1만명 육성 대책(김문수 도의원),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책, 100원 택시 등 고령자 교통이동권 확보 방안(이규현 도의원), 전남 특수학교의 기숙사 대책, 청년 연령기준 49세 상향, 출생아 붕괴 대책(박문욱 도의원), 고교 실습생 제도 사고 방지 대책(주중섭 도의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강문성 도의원),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민영화 계획(박형대 도의원),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차수벽 설치 지원 여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업무 행태를 묻고 대책 등을 챙기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는 질문 대부분이 전남의 현안인 하지만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사항들로 지자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어 자칫 꼼꼼한 팩트 체크와 실정 분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여주기식 질문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흘러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 노인일자리 유공 최우수상

‘커피찌꺼기 재활용’ 일자리 110개 창출...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광주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평가’에서 노인일자리 유공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는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도 2021년 전환경관 만들기 사업, 마을자원관리사 사업, 공원환경정비사업, 풍영천클린방범대 사업 등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

는 친환경 노인일 자리를 발굴한 점이 인정을 받았다.

시는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석유관리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국립공원공단 등 공공기관의 기금 등을 활용한 사회공헌 지역특화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인일 자리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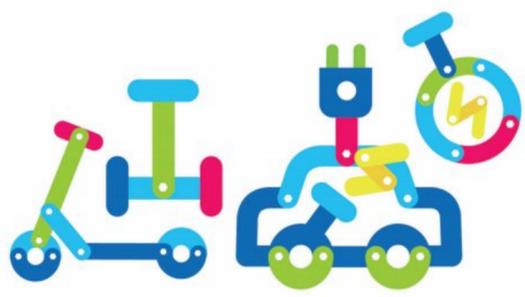
특히 올해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선도 모델 사업’으로 한국환경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롯데GRS 등 유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일자리 110개를 추가 창출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류미수 광주시 복지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가 공존하고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영광 e-모빌리티 엑스포

2022.10.13. (목) - 10.16. (일) 영광스포티움



개막식 축하공연

10.13.(목) 15:30-18:00

장민호 포레스텔라

박진도 설하운

임백천의 백뮤직 공개방송

10.15.(토) 17:00-19:00

DJ | 임백천

출연진 | 박인규, 김정훈, 홍진영, 신현의밴드, 경서(K-pop), 김기태(싱어메인), 이명찬(국민가수)

할인판매 행사(블랙데이)

10.13.(목)-16.(일) 10:00-17:00

할인판매 행사 BLACKDAY

e-모빌리티 저렴하게 구매하는 절호의 기회!

최대 50% 할인

삼륜전기자, 오토바이, 전기 자전거

경품추첨

10.13.(목)-16.(일) 16:30-17:00

매일매일 쏟아지는 경품 대잔치!

전기삼륜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자전거, 캠핑용품 등(총 10만명)

대형로봇 전시 및 체험

10.13.(목)-16.(일) 10:00-17:00

e-모빌리티 시승체험

10.13.(목)-16.(일) 10:00-17:00

주최 

주관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조직위원회**

영광군 **군수** **강종만**

부군수 **김장오**

영광군의회 **의장** **강필구**

부의장 **부 의장** **김한균**

의회운영위원장 **장영진** **의원** **김강헌**

자치행정위원장 **정선우** **의원** **임영민**

산업건설위원장 **조일영** **의원** **장기소**

한수원(주)한빛원자력본부

본부장 **천용호**